

△ 現代電機

# 國內 產業視察 을 다녀와서

李 相 植

大韓電氣協會 出版部

새벽녘, 스산한 바람소리와 전날 내린 가랑비 사이로 나뭇잎 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눈을 부시시 비벼본다.

電氣技師 85名으로 구성된 이번 第15回 國內 產業視察에 처음 참가하는 筆者는 2泊3日間 ('90. 11. 6~11. 8) 일정에 따라 團員들을 인솔하게 되었다. 參加人員이 작년도의 80名보다 다소나마 늘어난 것은 이 행사와 電氣協會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는 會員들의 덕분이라 생각된다.

07시 30분, 李慶植 理事를 團長으로 한 視察團은 2대의 버스에 분승하여 協會를 출발, 中部高速道路를 통해 慶州를 向하였다. 가는 도중 金基旭 課長의 2泊3日間 日程案內와 參加者들의 자기소개 시간을 가지면서 첫날 일정이 시작되었다.

車窓밖으로 스쳐가는 가을의 상큼한 맛과 도로 위에 튀구는 낙엽, 晩秋의 들녘에 아낙네들의 바쁜 일손을 보면서 田園風景의 사색에 잠시 잠겨본다. 사색의 틈도 잠깐, 일행을 태운 버스는 첫 방문지인 慶州에 도착시간보다 20分 일찍 도착해 森園가든에서 중식을 한 후 곧장 慶

州 視光 길에 올랐다.

慶州博物館 → 太宗武烈王陵 → 김유신將軍墓 → 大陵苑(天馬塚) 순서대로 관람했다.

學窓時節 修學旅行을 한번쯤 다녀 온 慶州, 國際觀光地인 慶州는 우리 文化의 故鄉으로, 찬란한 新羅의 文化遺産을 가진 거대한 自然 博物館이다.

千年古都 新羅의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國立 慶州博物館으로 먼저 발길을 옮겼다. 1千年에서 8年이 모자라는 992年間의 新羅文化를 綜合整理하고 수렴하는 文化財의 寶庫인 이곳 전시실마다 숨막힐 듯한 아름다움에 입은 다물어지고 눈동자만 더욱 빛난다.

그리고 박물관 주변 뜨락에는 金影마다 우아한 新羅의 손길이 유감없이 느껴진다. 한편, 박물관 정문을 들어서면 맨 먼저 눈에 띄는 에밀레鐘(一名 成德大王神鐘)의 그 神妙한 소리는 韓國人의 울음을 담은 靈魂의 音色이며, 天人의 飛天像 조각은 美의 표출을 나타내고 있다. 약 2만 7백여명의 國立 慶州博物館을 돌아 보고 다음 목적지인 太宗武烈王陵과 김유신將軍墓로 버스는 이동하였다.

三國統一의 大業을 이룩한 太宗武烈王과 김유신將軍은 新羅의 三國統一과 中興期를 마련하였다. 이들의 넋이 숨쉬고 있는 이곳 太宗武烈王陵은 陵線이 유연하게 곡선을 이루어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루고 있으며, 별 장식 없이 면서 陵 주위에 자연적으로 석축을 쌓아 護石을 삼았다는 관리인의 說明이다. 그리고 김유신將軍墓 들레에 있는 12地神像은 우수한 조각기술의 美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 두 곳을 둘러 보면서 우리네 조상들을 잠시 생각하면 分斷의 아픔과 祖國統一의 현실을 생각해 한다.

大陵苑은 天馬塚을 포함한 20여기 陵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155號 古墳인 天馬塚의 찬란한 금관장식품等 出土물은 밤하늘의 별만큼이나 황홀하고, 大陵苑 주변의 무덤과 잔디는 한 폭의 용단을 깔아놓은 듯 포근하기만 하다. 大陵苑을 관람한 후 東海館에서 석식을 하고 나서 普門團地內에 있는 콩코드호텔에 숙소를 정하고 여장을 풀었다.

現代的 감각과 古典美가 조화를 이룬 普門團地는 쾌적한 분위기의 공간을 가졌다. 적막하고 고요한 湖畔을 산책하면서 하루의 피로를 잊고서 잠을 청할 수가 있었다.

날이 밝아오고, 조국근대화의 산업물결이 숨쉬는 蔚山에 도착한 시간이 11시 50분, 먼저 現代重電機(株)를 방문하니 이곳 책임자인 郭太擘專務와 직원 여러명이 우리 視察團 일행을 반가이 맞이 하면서 社友會館으로 案内하였다. 이곳으로 案内된 視察團一行은 現代重電機(株)의 沿革과 生産製品에 대한 소개를 들었다.

現代重電機(株)는 1978年11月1日 設立된 會社로서 1973年12月 現代重工業(株)에서 분리 독립된 회사이다. 1973年 분리된 후 現代重電機(株)는 技術革新을 통하여 1979年 345kV變壓器

실험실을 준공하여 많은 제품을 생산, 산업현장에 공급해 오고 있다고 한다. 同社는 산업의 원동력인 電力을 공급하는 각종 重電機와 産業用 制御設備, 船舶用전장품, 철도차량용품等を 생산, 공급하고 있는 會社로서, 1970年 國內 산업의 고도성장 및 국제화에 따라 전기제품의 대형화, 고급화로 신기술의 도입과 시설을 확충하고, 技術人力을 꾸준히 보강하여 重電機器의 수출산업을 갖추어 우리나라 重化學工業 발전에 일익을 담당하는 명실상부한 國內 綜合重電機 메이커로 도약하고 있다는 會社側의 說明이다.

이어서 超高压遮断器「SF<sub>6</sub> 가스 絶緣 開閉裝置」에 대한 세미나가 40분정도 진행되었다. 세미나를 진행한 同社 박중호部長은 國內 전력수요의 증가에 따라 최근의 변전소 설비가 점차 高電壓化되어 가는 추세와 地價 상승으로 變電設備, 用地構入의 어려움이 따라 設置面積의 축소화, 염해, 먼지等에 의한 絶緣物의 오손, 소음공해, 안정성에 대해 심각한 고려가 요구된다고 했다. 또한 부품의 용이한 교체 및 보수점검



△ 박물관 주변의 석조물

이 요구됨에 따라 기존의 도체절연이 대기에 의존하던 것에 비해 絶緣力이 높은 SF<sub>6</sub> 가스를 이용하여 용적을 상당히 축소시켜 효율을 얻는다고 추가했다. 세미나가 끝난 후 同社 金泰洙次長의 소개로 예정에 없는 現代電動機産業(株)로 안내되었다. 李鍾淳社長이 직접 團員一行을 반가이 맞이했다. 곧이어서 同社 李清一理事와 朴慶和設計部長의 안내로 工場施設을 둘러보았다.

現代電動機産業(株)는 3마력 이하의 소형電動機 모터를 주종으로 생산하는 회사로서, 에너지 절약형인 ES 모터는 설계단계부터 CAD 및 FEA(Finite Element Analysis)를 통하여 설계되어 산업용 모터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을 신소재 개발하여 모터의 수명을 연장하고 動力費를 절감하여 제품의 고신뢰성을 창출, 산업현장의 생산활동에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 있었다.

다음 견학지인 現代重工業(株)는 金泰洙次長의 안내로 버스로 이동하면서 견학설명을 들었다. 勞社分科하면 現代重工業, 現代重工業하면 勞社分科의 등식이 연상되는 현장.

노사분규 때 신문, 방송매체에 자주 오르내리던 폴리앗 크레인. 그 규모는 웅장하고 거대하기만 하다. 案内者의 說明에 의하면 폴리앗 크레인의 규모는 높이 80m, 길이 130m 라며 現代重工業(株)의 상징물이라고 한다. 과거의 노사분규 현장에서 산업역군들의 활기찬 걸음걸이에서는 분규의 그늘이 일순간에 사라지고 노사간의 화합의 목소리가 메아리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잠시 기념촬영을 하고 13시에 現代重電機(株)에서 마련한 점심을 먹은 후 직원들의 환송을 받으면서 버스는 다음 목적지인 浦項製鐵로 버리를 돌렸다. 15시20분에 도착해 곧장 弘報館으

로 안내되어 浦鐵의 이모 저모를 청취했다.

浦鐵은 1968년에 設立되어 1973年 第1期 設備준공(조강년산103만톤)을 거쳐 20여년 만에 현재 光陽製鐵과 합해 1,450만톤의 生産設備 체제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쇠를 지배하는 民族이 世界를 지배한다'는 말이 있다. 20세기 들어 世界 10位圈의 鐵鋼生産 強國으로 부상한 浦鐵은 국내 철강 자급도 84.7%를 넘어서게 하였고 바늘에서 선박까지 鐵을 소재로 하는 모든 공산품을 만들어내고 있다. 포철에서 生産되는 品目은 빌레트, 열연 코일, 열연박판, 열연대강, 후판, 냉연제품, 스텐레스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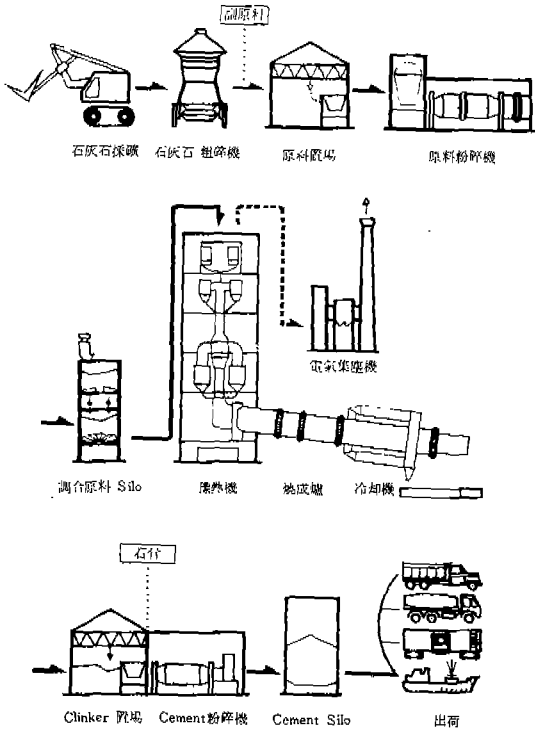
이와 같이 모든 제품의 原料를 호주,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수입하여 다시 가공품으로 세계 50여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浦鐵은 21세기 鐵의 文化를 이루어 나가는 國民의 企業이기를 기대해 본다.

浦鐵은 재직중인 社員의 부인들을 통해 홍보섭의 요원을 선발, 하루에도 수만명을 안내 자원봉사한다고 한다. 우리 일행도 이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직접 鐵을 생산하는 製線設備현장을 견학하였다.

設備過程을 보고난 후 안내자는 浦鐵의 自家發電容量은 50만kW로서, 麗水火力發電所 施設容量과 비슷하며 전기사용은 自家發電으로 85% 공급하고 韓電 계약으로 15%를 공급한다고 설명해 주었다.

어느덧 浦鐵을 출발할 시간이 다가와 자원봉사 안내원의 잔잔한 미소를 뒤로하고 철의 도시인 浦項을 벗어났다. 일행을 태운 버스는 해안선을 따라 白岩温泉으로 힘차게 달려 나갔다.

白岩温泉에 도착하여 이틀째의 産業視察의 시간을 정리해 보면서 숙소로 향한다. 墾留파크호텔에 여장을 푼 團員들은 三三五五 그룹을 지어



〈그림 1〉 시멘트 제조과정

관광하는 사람, 온천욕을 즐기는 사람 등 즐거운 모습들이었다. 온천욕을 한 탓인지 피로가 한꺼번에 가신 듯하였고 신뜻한 기분으로 잠자리에 들 수가 있었다.

08시 白岩溫泉을 출발, 聖留窟(天然記念物 第155號)에 도착하여 窟 내부를 둘러 보았다.

聖留窟은 신라 31代 신문왕의 보친태자 修道處로서 석회암 천연동굴이며, 연륜 2억 5천만 년이 된다. 그리고 全長 472m에 5지 12 광장의 奇岩怪石으로 구성됐으며, 약 50만본의 鍾乳石과 생물 31종 이상이 서식한다고 한다.

聖留窟을 구경하고 나오면서 三和電子工業(株)에 근무하는 정연희氏가 筆者의 둘째 아이 출산

이야기를 듣고 미역을 한 꾸러미를 사다주어 당황하게 만들었다. 지면을 통해 고마움을 대신하고 지금도 감사하게 생각한다.

일정에 쫓기며 버스는 東海岸을 따라 바다가 한없이 펼쳐진 해안선을 따라 北上을 하고 있다.

눈이 시리도록 푸른 동해 바다. 우리 일행은 車窓밖을 내다 보면서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어느덧 11시 30분 雙龍洋灰工業(株) 東海工場에 도착, 同社의 설명과 시설물을 견학하였다.

雙龍洋灰工業(株) 東海工場은 1962년에 설립되었으며 年生産量은 1,268만톤(Clinker 기준)으로 국내 시멘트 생산량의 4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東海工場이 32%를 차지한다는 안내자의 설명이다. 東海工場 시멘트 製造 工程을 살펴 보면 그림 1과 같다.

우리 一行은 시멘트 製造 工程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공장시설물을 둘러 보았다.

2泊3日 일정을 團員들의 협조로 무사히 마치면서 東海高速道路를 거쳐 황금빛 들녘의 무한한 풍요로움과 가을의 햇살을 받으면서 歸京 길에 올랐다.

2泊3日의 마지막 일정인 産業視察이 아쉬운 듯 歸京도중 Bus에서 三立食品工業(株) 김유환 課長의 사회로 여흥시간을 가졌다. 여흥시간도 일순간, 19시 20분 서울에 도착한 우리 산업시찰 일행은 이번 산업시찰의 아쉬움과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을 지적하면서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즐거운 여행 끝에 다시 한번 電氣界의 발전을 기원하면서 아쉬움을 달랬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 이별의 인사를 나누면서 발길을 재촉하였다.

끝으로 이번 産業視察을 무사히 마칠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모든 産業視察團員들께 고마움을 잊지 않는다.